2010 대구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좋은 사람들의 좋은 경기! (8/21~29)
에쓰-오일이 응원합니다
S-OIL

東亞日報

서울 23~30℃ 경기 21~30℃ ▶상보 A14면

1920년 4월 1일 창간 제27700호 45판

dongA.com

2010년 8월 17일 화요일 단기4343년 (음력 7월 8일 己亥)

전화 02-2020-0114 구독·배달안내 1588-2020

I'm Your Big Fan!
대한생명

현직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증인석에

청문회 정국 뜨거워진다

박연차-천신일 씨도 증인채택

2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여권은 당초 청문 대상자 대부분이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친 정치인과 공직자 출신이고 인선과정에서도 다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청문 절차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으나 예상치 못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3면에 관련기사

이에 따라 8·15 전에 당정청 진용을 갖추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국정운영 구상에 따라 집권 후반기를 '뉴 스타트'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16일 '거물급' 인사들을 인사청문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증인으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채택했다. 검찰은 김 내정자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야당은 다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 전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그가 처음으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노 전 대통령 수사를 포함한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민감한 발언이 나올 수 있어 주목된다.

총리 인사청문 증인 명단에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이인규 변호사,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도 포함됐다. 노 지검장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이 변호사와 우 기획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의 증인 채택까지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 증인에는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이 포함됐다. 이 내정자와 천 회장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대통령의 친구'로 야당으로부터 각종 공세를 받아온 천 회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도 처음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달의 신은 떠나고… 모래바람 속 스러져가는 페루 찬찬 유적

페루 '찬찬 고고유적지' 곳곳에는 흙벽돌로 지어진 유적이 비로 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쳐놓은 천막이 눈에 띈다. 찬찬 유적지의 상징이기도 한 마름모꼴의 벽장식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 등으로 이미 대부분이 훼손돼 원형의 아랫부분만 남아 있다. 트루히요=이정은 기자 lightlee@donga.com

세계유산·무형문화유산 미디어파트너십 東亞日報

"꺼져가는 세계유산에 생명의 빛을"

유네스코-동아일보 공동기획

A4·5면에 시리즈

경북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로 한국도 10개나 되는 세계문화·자연유산 보유국이 됐다. 하지만 세계 유산에 등재됐다는 '빛' 뒤에는 몰려드는 인간의 발길로 몸살을 앓거나 아예 방치되는 '그늘'도 있다. 등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가꾸고 보존하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

동아일보는 유네스코와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소개하고 보존 및 복구를 위한 노력을 현장 시리즈로 연재한다. 우선 1부를 5회에 걸쳐 연재하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심층 기획 시리즈를 추가 보도하는 2부를 내년 5월 말까지 실을 계획이다. 이번 시리즈는 본보가 5월 한국 언론사 중 최초로 유네스코와 '세계유산 보호 증진을 위한 미디어 파트너십' 구축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삼성전자 협력사 지원 1조 펀드 조성

삼성전자가 2, 3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뛰어난 1차 협력업체는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납품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원자재를 직접 사서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B1면에 관련기사

삼성전자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인 박종서 전무는 "협력업체로부터 들은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6월부터 80여 개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상생 관련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삼성전자는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2, 3차 협력업체까지 혜택을 주는 1조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펀드'를 조성해 협력업체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 또 '베스트 컴퍼니' 제도를 도입해 2015년까지 협력업체 중 우수한 50개사를 글로벌 톱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삼성 측은 "이번 상생경영안은 정부의 '대기업 책임론'에 대한 삼성의 1차적인 답변"이라며 "계열사별 상생 방안을 모아 9월 삼성그룹 차원의 상생경영안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月 14만원

가구당 통신비, 가계지출의 7.4%
스마트폰 확산 영향 사상최대로

정부가 초당 요금제 도입 등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오히려 통신비가 늘면서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16일 통계청의 2분기(4~6월) 가계 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액은 14만2542원으로 월평균 소비지출(193만8000원)의 7.35%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조사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통신비 비중은 2분기 기준으로 2006년 6.84%에서 2007년 7.08%, 2008년 7.23%, 2009년 7.24%, 올해 7.35%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 휴대전화보다 상대적으로 통신비용이 많이 나가는 스마트폰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의 대표적인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갤럭시S는 정액요금제로 가입해야 전화기 구입비가 할인되기 때문에 대부분 월 4만5000원 이상 요금제(부가가치세 별도)에 가입하고 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동아미디어그룹 수습기자 1차 합격자 발표
명단은 www.donga.com에서 확인하세요

中, 日 제치고 제2경제대국 됐다

GDP 사상 첫 역전… 日, 42년만에 2위자리 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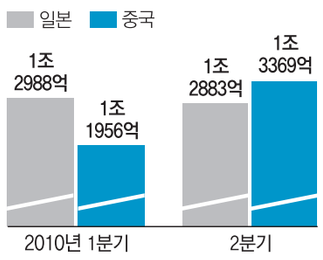
중국 경제가 마침내 일본을 추월했다.

2분기(4~6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돼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줬다. 일본이 1968년 독일(당시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른 지 42년 만이다. ▶A2면에 관련기사

16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분기 GDP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명목GDP(달러 환산)는 1조2883억 달러로 중국(1조3369억 달러)보다 486억 달러 뒤졌다. 비록 2분기 실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올해 10%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2분기를 기점으로 양국 간 경제 역전이 굳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지난해 GDP 규모는 5조680억 달러로 중국(4조9850억 달러)에 간발의 차로 앞서 2위 자리를 지켰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GDP 규모가 일본의 절반에 불과했던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올라선 것은 중국이 이 기간에 연평균 10%대의 가파른 성장을 한 반면 일본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5년부터 3년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일본과 중국의 GDP 추이(단위: 달러)



세계 주요 언론들은 중일 경제역전에 따라 세계경제와 정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중국이 2분기에 일본을 추월한 것은 세계가 이제 중국을 '경제 슈퍼파워'로 인정해야 하는 때가 됐음을 알리는 분수령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제치고 일본까지 넘어서 이르면 2030년에 미국을 능가할지에 대한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나와 8·15〈5〉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A6면

발행면수 A32 B12 C8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정든 검찰을 떠나 변호사(형사, 세무, 민사 등)로 새 출발하오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서부초등학교, 인천중학교, 경기고등학교(71회)
- 서울대 법학과(75학번), 일본 경응대 • 동경지검 장기연수
-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 서울지검 검사, 대전특수부장, 수원형사부장
- 법무부 공보관, 서울지검 외사부장검사
-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사장 승진)
-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 광주지방 검찰청 검사장
- 수원지방 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박 영 렬 올림

■ 업무개시 : 2010 8. 16. (월)
■ 개업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6-2 부림빌딩 501호
■ 대표전화 : (02) 595-6100
■ 개업소연 : 2010. 9. 2. (목) 18:00부터

알림

2011 외고, 과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국제중 학교체제 변화
특목고 판도 예측 및 고교 선택전략

8월 26일(목) 오후 2시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참가예약 www.edusky.co.kr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반드시 사전예약 부탁드립니다.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자료집이 배부됩니다.

동아일보 · (주)하늘교육 공동 주최

설명회 일정

지 역	일 시	장 소
서울·수도권	8월 26일(목) 오후 2시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
대전·충청권	8월 27일(금) 오전 11시	대전 서구문화원 공연장
광주·호남권	8월 27일(금) 오후 4시	우체국보험 광주문화센터 16층
대구·영남권	8월 30일(월) 오전 11시	대구 컨벤션센터 3층
부산·경남권	8월 30일(월) 오후 4시	부산국제신문사 4층

설명회 내용

1. 외고입시판도 예측 및 합격선 추정
2. 2011 영재학교 입시 분석에 따른 과고 전략
3. 전국 자율형사립고 확대에 따른 변화 예측 및 고교 선택 전략 (학교별 정보 공개)
4. 전국 일반계고 학교별 수능, 진학관련 입시 정보 공개
5. 용인외고, 상산고, 공주한일고, 천안북일고 등 전국단위 선발학교 합격선 추정
6. 자기주도학습전형 전략

연 사
(주)하늘교육 기획이사 임성호
영역별 전문강사

설명회 문의 : 하늘교육 본사 02)761-3200